

##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오 정 준\*\*

###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Ecotourism Destination\*

Jeong-Joon Oh\*\*

**요약** : 생태관광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관광지의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관광유형으로 인식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형성된 다수의 생태관광지가 환경 파괴에 직면하고 있음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제주도내 3개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적격여부를 판단하고,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사 결과 송당리 아부오름과 종달리 체험어장의 지속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은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생태관광이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며, 올바른 관광계획, 개발, 관리에 따라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주요어** : 생태관광,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지, 환경파괴, 지속가능성

**Abstract** : Ecotourism has been considered as sustainable tourism since it has been believed to preserve the environment of a tourist destination as well as to satisfy the various needs of tourists. However, most of destinations recently developed for ecotourism have confronted environmental degrad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hallenge and reestablish the concept of ecotourism. This study seeks to provide new perspectives on the concept of ecotourism by estimating the sustainability of three ecotourism destinations in Jeju Island. The *Yae-Rae Dong* Ecotourism Village shows a high level of sustainability, while the *Ah-Bu Oh-rum* at *Song-Dang Ri* and the Experience Beach at *Jong-Dal Ri* shows a low level of sustainability. In result, the ecotourism in itself is not sustainable tourism, and further this study suggests that appropriate planning,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a destination are important factors to decide the success of sustainable tourism.

**Key Words** : ecotourism, sustainable tourism, ecotourism destination, environmental degradation, sustainability

## 1. 서론

### 1) 연구목적 및 방법

대중관광 중심의 관광개발은 대부분 국가의 주도하에 진행되어왔고, 그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측면의 관광영향은 지역사회에 빠르게 파급되었다. 대량의 관광객이 방문함으로써 관광의 근간인 자연환경은 파괴되었고, 관광객 문화의 침투로 말미

암아 지역문화와 상충되는 문화적 충격이 나타났다. 또한 토지의 상당 부분이 외지인에 의해 잠식되고, 관광으로 파생된 경제적 수익은 외부로 유출되었다(오정준, 2003). 그 결과 지역사회는 대중관광을 부정적 관광유형으로 인식하였고, 지역환경을 보전함과 동시에 관광을 통해 경제적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대안적 관광개발을 모색하기 시작했는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관광개발이다.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을 가필·보완한 것임.

\*\* 경희대학교 BK21 관광브랜드개발팀 박사후 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 fellow, Tourism Brand Development Team, Kyunghee University, BK21 Program), ohjj68@hanmail.net

생태관광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관광객 경험의 질을 충족시켜주는 관광유형으로서 (Tickell, 1994), 자연환경을 단순 경험하는 기존의 자연관광에 비해 관광지의 환경적, 사회·문화적, 경제적 지속가능성을 추구하는 관광으로 정의되고 있다(Nelson, 2002). 그 결과 생태관광은 관광지 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규정되어 왔다. 생태관광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 때문에 상당수의 국가 및 국제기구는 생태관광을 통한 개발을 모색하고 있으며<sup>1)</sup>, 지역사회는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역환경의 보전을 동시에 도모하고 있다.

실제 상당수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가 생태관광개발을 계획하거나 이미 실행하고 있다. 이들이 생태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이유는 생태적으로 희귀한 자원, 다시 말해 지역에 산존하는 동물, 식물, 무생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타의 관광개발 및 지역개발 사업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적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들은 생태관광개발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부수적으로 지역의 환경까지 보전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제주도내 3개 생태관광지의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으로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생태관광이 개발과 보전을 공생시킬 수 있는 지역개발의 새로운 대안인지, 아니면 양자의 파멸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위락풍조의 일시적 유행인지를 판단함으로써 생태관광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지평을 확립하는데 궁극적인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목적의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조사, 현지조사, 설문조사, 지표조사를 채택하였다. 먼저 관련문헌을 체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문제의 소재와 과제 해결의 방안을 파악하였다. 문헌조사의 토대 위에 생태관광지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총 6회의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앞선 연구방법을 통해 나타난 결과를 보충하고 심층적인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 실시했는데, 하나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통한 표준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구조화되지 않은 설문지를 사용하면서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을 포함하는 반표준화 방법이다. 전자는 관광영향과 지역주민의 환경의식을 파악하기 위해 관광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수거된 설문지중에서 250부를 실제분석에 이용하였다. 후자는 표준화 방법에서 획득할 수 없었던 내용과 간과된 부분을 설명하는데 주력하였다. 이는 지역주민, 주민대표, 학자, NGO,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여 조사하였다<sup>2)</sup>. 지표는 크게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할 측면, 관광영향과 지속가능성의 측면, 관광계획과 관리부문의 세 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총 15개의 세부 목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영향과 지역주민의 의식을 측정하는 지표는 설문지 조사를 통해 추출하였으며, 나머지 지표는 해당 지역의 주민대표에 대한 면접을 통해 파악하였다.

## 2) 연구지역

제주도의 관광공간은 현재 수직·수평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관광공간은 해안 경승지나 한라산과 같이 수려한 경관과 볼거리를 제공하는 특정장소에서 형성되었다. 그 결과 관광지의 입지가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나타났다. 그러나 관광객의 기호가 다변화되고 일상생활과 관광간의 경계가 소멸됨에 따라 관광지가 특정장소로 분화되어 발전하지 않고 일상장소를 따라 탈분화(de-differentiation)되어 입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sup>3)</sup>. 그 결과 관광지는 수직·수평적으로 확산됨으로써 제주도 전역이 관광지화 되는 현상이 현재 나타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생태, 문화, 체험, 녹색 등의 대안적 관광유형을 표방하고 있다(오정준, 200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관광지 중에서 생태관광을 표방하고 있는 관광지 3개를 선정하여 사례조사지역으로 선정했다. 첫 번째 사례지역인 아부오름은 제주도의 대표적 생태관광지로서 최근 몇 년 간에 걸쳐 환경교육장이자 생태체험장으로 각광받아온 장소이다. 뿐만 아니라 오름 자체와 주변경관이 매우 수려하기 때문에 '제주오름관광'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지이다. 두 번째인 종달리 체험어장은 조개를 직접 채취할 수 있다는 매력으로 인해



그림 1. 연구지역

지난 몇 년간 폭발적인 관광객 방문이 이루어진 장소로서, 최근 새로운 관광양상으로 부각되고 있는 '체험관광'을 목격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세 번째 사례지역은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이다. 이는 중문관광단지에 인접한 마을로서 관광단지에서 파생되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체감하는 지역이다. 대표적인 예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이 마을에 집중 입지함으로써 주민들은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관광의 부정적 영향을 다른 지역보다 먼저 경험했고, 그것의 입지반대 운동을 조직적으로 전개하면서 환경의식이 상승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실천적인 대안으로, 주변의 문화 및 자연자원을 개발하여 마을을 생태관광지로 전환시키려는 계획이 주민 스스로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

## 2.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

생태관광은 대안관광(alternative tourism)의 가장 대표적인 관광유형이다. 기존의 대중관광(mass tourism)이 관광상품의 판매를 통해 이윤을 최대화하려는 '포드주의적 생산'에 근거하고 있다면, 대안관광은 '탈포드주의적 소비'를 충족시키는 관광상품의 유연적 공급에 기초하고 있다. 그 결과 생태, 녹색, 문화, 체험, 농촌관광 등의 다양한 관광유형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관광과 사회 제부문과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탈분화 현상이 부각되고 있다.(Munt, 1994). 그러나 생태관광을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에 따른 휴양풍조의 한 맥락으로 간단히 설명할 순 없다. 생태관광은 인간이 자연을 경험하고,

자연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반영해주는 하나의 지표로서, 자연생태계에 최소의 영향을 미치려는 '절제의 관광'이라고 할 수 있다(이후석 역, 2001). 따라서 자연을 단순 경험하는 기존의 자연관광(nature tourism)과 달리 자연환경에 대한 교육과 해설을 제공하며,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자연중심의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Nelson, 2002). 결국 생태관광은 관광 본연의 목적인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물론이고 관광지의 자연환경을 고려하는, 일종의 '환경을 위한 행동'이기도 하다.

생태관광의 이러한 장점 때문에 그것이 지역사회의 주도로 전개되는 것이라면,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속가능한 관광은 학자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지역사회가 주체가 되고 관광객의 다변화된 기호를 충족시켜주는 동시에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의 활성화와 삶의 질을 충족시킴으로써 관광객과 지역사회간의 형평성을 모두 고려하는, 관광의 새로운 유형'으로 정의되고 있다(Bramwell and Lane, 1993; WTO, 1996; 한국관광공사, 1997; 김남조·조광익, 1998; 최영국, 2000; 김성일, 2001; 오정준, 2003).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의 부각 시기가 매우 비슷한 점도 있었지만, 양자가 모두 환경을 고려한다는 점 때문에 이들은 동일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대중관광에 의해 파괴된 관광지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대안관광을 지향하자는 Krippendorf의 견해는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초기개념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는 경성관광(hard tourism)과 연성관광(soft tourism)의 특징을 비교하면서 환경을 위한 새로운 관광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는 대안관광을 통해서만 구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의 연구로 말미암아 대안관광은 '지향해야 할 것'으로, 그리고 대중관광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규정되기 시작했고(Krippendorf, 1982). 생태관광을 포함한 대안관광은 지속가능한 관광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되어 왔다(Clarke, 1997).

그러나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관광개발 역시 관광지의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가 나타나자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을 동일시하는 초기 개념에 많은 변화가 오기 시작했다. 대중관광이 양적 관광

인 반면에 생태관광은 질적 관광으로서 녹색심성을 구비한 소수의 방문자가 희귀한 생태자원을 경험하는 관광이다. 따라서 수용력(capacity)과 같은 단순한 양적 개념으로 고려한다면 소수의 방문자보다는 다수의 방문자가 관광지 환경에 많은 부담을 주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동안 인간의 간섭을 받지 않은 생태관광자원일수록 관광객의 방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물론이고, 소수의 관광객 방문에도 쉽게 파괴되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생태관광지의 기본 시설이 전무하거나 방문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환경파괴는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이는 결국 관광지 환경을 파괴시키는 주된 요인이 관광객의 많고 적음에 따른 양적 개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녹색심성을 구비한 소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생태관광지도 환경파괴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며, 환경의식에 문외한인 다수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대중관광지도 관리여부에 따라 환경파괴를 모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개념이 변화하기 시작했다. 초기개념은 지속가능한 관광이 특정관광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는 내포(possesion)의 측면을 강조했지만, 최근에는 달성해야 할 목표(goal)의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속가능한 관광은 하나의 지향점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Cl Clarke, 1997).

따라서 생태관광과 같은 관광유형을 통해서만 관광지를 지속가능하게 조성할 수 있다는 초기개념은 현실에 적용할 수 없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생태관광을 포함하는 대안관광은 관광객 기호의 다변화로 인해 파생된 포스트모던 관광유형이자, 대중관광에 반(反)하여 태동된 새로운 관광유형이다. 이를 확대 해석해서 관광지의 환경을 보전하고 그것을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해결책으로 고려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사고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관광과 대안관광을 동일하게 고려하는 것과 함께, 지속가능한 관광이 생태관광과 같은 대안관광에서만 추구될 수 있다는 것은 더 이상 논의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결국 대중관광과 대안관광과 같은 관광의 유형을 막론하고 그것이 지속가능한 목표를 향해 나아

가는 것이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Butler, 1998). 비록 대안관광과 생태관광의 성격이 가치 지향적이고 교육적이라고 할지라도 실제의 지역환경에 무리한 영향을 주고, 동시에 지역주민에게 그 어떤 혜택이 환원되지 않는다면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볼 수 없다. 반면에 대중관광이 다소 위락적인 특성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잘 관리되어서 환경적으로 양호한 관광지를 창출하고 지역주민에게 각종 혜택이 돌아간다면 그것은 지속가능한 관광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중, 대안, 생태관광과 같은 관광의 유형만을 판단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보다 실제의 관광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관광지 관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곧 생태관광과 지속가능한 관광이 동일시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잘 관리된 생태관광만이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 3. 생태관광지의 사례연구

#### 1) 송당리 아부오름

##### (1) 형성배경

아부오름의 외형은 마치 접시를 엮어놓은 듯이 평평하면서도 좌우가 대칭적인 형태로 발달해 있다. 이는 모든 방향의 사면이 매우 안정적인 형태로 발달해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내부를 확인하지 않아도 오름의 형태가 '원형'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이러한 형태는 마치 아버지나 어른이 좌정해 있는 모습과 같다고 하여 阿父岳이나 亞父岳으로 표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제주도, 1997). 그러나 옛 문헌에서는 앞선 표기들을 찾아볼 수 없다. 조선시대의 지도에는 모두 前岳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조선총독부 발행 지도(1918)와 耽羅誌(1954)에 와서야 앞선 표기들을 찾아볼 수 있다. 결국 송당리의 '앞'을 의미하는 前岳과 앞오름이 가장 본디의 이름과 가까운 표기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아부오름은 앞→앞오름→아보름→아부오름이라는 발음상의 변화로 볼 수 있다(김중철, 1997).

오름의 외곽은 둘레 1400m의 대형 분화구를 형성하고 있고 바닥의 둘레도 500m에 이르고 있다. 오름 자체의 높이는 51m이지만 화구의 깊이가 78m로서 오름의 높이보다 화구의 깊이가 더욱 큰 오름이다(김종철, 1997). 오름의 내부에는 커다란 원형 분화구가 있고, 화구 주변에는 삼나무가 조성되어 있다(그림 2). 이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것이지만, 오름 주변에 산재하는 피뿌리 풀, 청미래 덩굴, 질레 덩굴, 애기우산 나물 등은 제주도의 자생 식물에 포함된다. 이들은 대부분 난대식물로서,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서는 어디에서나 관찰이 가능한 식물이다. 따라서 아부오름에서만 관찰이 가능한 특이 동·식물은 없다고 볼 수 있고, 천연기념물과 같은 보호식물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 그림에도 불구하고 아부오름이 생태관광지로 부각된 것은 오름 그 자체는 물론이고 주변경관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제주도민 뿐만 아니라 외지인의 환경교육을 위한 교육장소와 생태체험장으로 이용되는 것은 물론이고 영화 촬영장소로 부각될 수 있었다.

아부오름은 전적으로 관광객 방문에 의해 형성된 관광지이다. 지역사회나 개발업자,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주도에 의해서 형성된 관광지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관광객 방문은 크게 세 가지 사회적 배경에 의해 시작되었다. 첫 번째는 매체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다. 전문서적과 같은 대중매체는 장소이미지를 일반인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대개 담당한다. 유홍준이 저술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가 국토를 정주지로서만 보지 않고 미학적 감상의 대상으로 형상화하여 관광객 시선을 형성했듯이(심승희, 2000), 제주도 오름에 관한 전문서적인 '오름 나그네(김종철, 1995)'와 '제주의 오름(제주도, 1997)' 역시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또한 영화 매체를 통해서도 부각되기 시작했다. 아부오름은 오름 그 자체뿐만 아니라 주변 경관이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여타의 오름에 비해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이러한 경관에 매료된 영화제작자에 의해 1998년과 1999년에 걸쳐 영화 '이재수의 난' 및 '연풍연가'의 촬영장소로 활용되었다. 이후 영화를 관람했던 사람들이 방문을 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관광객 시선을 형성하여 아부오름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을 발생시켰다.

두 번째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오름에 대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많은 오름 동호회와 답사팀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고, 오름을 통한 생태·환경학교가 꾸준히 운영되고 있다. 그 중 아부오름은 각종 단체가 방문하는 가장 대표적인 오름중의 하나이다. 세 번째는 제주도민의 기호변화를 거론할 수 있다. 도민들은 제주도의 지리적 특성 때문에 단기간의 관광행위가 제주도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육지와 마찬가지로 여가기회가 확대되고 경제적 능력이 향상되었지만, 섬이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방문장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은 육지의 관광객과 구별되는 장소를 찾고자 했다. 그것은 육지관광객이 방문하는 장소가 대부분 방문경험이 있는 장소임과 동시에, 육지사람에 대한 배타적 태도에 따른 것이다. 도민들은 자신의 여가활동이 육지사람의 관광활동과 동일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기를 원치 않았으며, 관광객과 자신들을 공간적으로 '구별짓기'하기 원했던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일종의 '분류의 투쟁'은 제주도에서 여가공간의 확대를 가져와 관광공간의 탈분화를 더욱 증폭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sup>4)</sup>, '오름관광'을 탄생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 (2) 관광현황과 관광영향

관광객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가늠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마을 주민의 의견을 종합해볼 때, 계절별로는 봄과 가을에 집중하고, 요일별로는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광객 수는 성수기 주말의 경우 1,000여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것으로 면접 조사 결과 나타났다. 관광객 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조사된 바 없고, 장기적인 현장조사를 할 수 없었다. 다만 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추론하여 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마을 이장을 포함한 주민들에게 문의한 결과 성수기에 대략 20여 대의 관광버스와 비슷한 수의 승용차가 아부오름 주변에 어지럽게 주차가 되어있다고 공통적으로 진술하였다. 버스의 탑승인원을 45명이라 전제한다면 그 숫자는 900명으로 산정할 수 있다. 또한 승용차에 의한 방문객까지 합한다면 대략 1,000명 내외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관광객의 구성은 대부분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대안관광객으로서, 대중관광객이 보여주는 일반적 행동, 다시 말해 위락 지향적 관광행위는 관찰하기 힘들다. 또한 관광의 목적 자체가 생태체험이나 환경교육에 국한됨으로써 대중관광객에서 관찰할 수 있는 쓰레기 투기 및 환경파괴와 같은 행위는 찾아볼 수 없다. 관광객의 대다수가 대중관광객보다 대안관광객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유는 아부오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데다, 인접도로와의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으며, 기본적 관광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대중관광을 추구하는 관광회사의 관광루트에 아부오름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오정준, 2003).

설문지를 통해 관광영향을 조사해본 결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마을경제활성화 및 고용창출과 같은 긍정적 측면과 지가상승 및 외지인 토지소유증가와 같은 부정적 측면의 항목에 어느 정도의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지만 확연히 부각되는 항목은 볼 수 없다. 그러나 심층적인 면접을 실시한 결과 부정적 측면의 관광영향이 다수 상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부오름 주변의 건영목장, 송당목장, 개인목장에 종사하는 주민들

은 관광지 형성으로 인하여 소들의 수태(受胎)불능 및 방목의 어려움과 같은 불편을 경험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목장종사자들은 관광객의 방문을 달가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방문하는 관광객의 접근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접근로를 폐쇄하거나 심지어는 옥설을 통해 관광객을 추방시키고 있다. 실제 간선도로에서 아부오름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철문으로 봉쇄하고 있고(그림 3), 오름 주변에는 철조망을 설치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을 통제하고 있다(그림 4). 이는 아부오름과 지근(至近)거리에 있는 주민일수록 많은 관광영향을 받았고, 어느 정도 이격(離隔)되어 있는 여타의 지역주민들은 별다른 관광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실제로 여타의 지역주민들은 아부오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국 표 1에 뚜렷하게 부각되는 항목이 없는 이유는 관광영향을 많이 받은 아부오름 주변의 목장 종사자들이 전체 조사대상자의 26.3%에 불과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관광객의 방문으로 인한 환경파괴가 오름 표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답압(踏壓: trampling)에 의한 지표면의 훼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오름으로 접근하는 등산

표 1. 관광영향에 대한 송당리 주민 응답

구 분	설문내용	응답(%)					
		강한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부정	
경제적 영 향	긍정적 특 면	마을 경제 활성화 여부	13.2	44.7	15.8	18.4	7.9
		고용창출 여부	0.0	31.6	28.9	31.6	7.9
		관광소득의 지역내 재투자 여부	5.3	13.2	28.9	42.1	10.5
	부정적 측 면	땅값의 상승과 외지인 토지소유증가 여부	0.0	36.8	26.3	28.9	7.9
관광소득의 외부 유출 여부		2.6	18.4	39.5	36.8	2.6	
사회· 문화적 영 향	긍 정	주민 자긍심 및 마을 이미지 향상 여부	2.6	28.9	26.3	39.5	2.6
	부정적 측 면	고유한 전통 및 문화의 붕괴 여부	2.6	21.1	31.6	44.7	0.0
		범죄 증가 여부	5.3	13.2	42.1	36.8	2.6
		관광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의 존재 여부	0.0	15.8	31.6	44.7	7.9
		관광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여부	0.0	13.2	28.9	50.0	7.9
환경적 영 향	긍정적 측 면	마을 생활(물리적)환경의 개선 여부	2.6	23.7	36.8	34.2	2.6
		삶의 질의 개선 여부	2.6	21.1	34.2	34.2	7.9
	부정적 측 면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발생 여부	2.6	10.5	39.5	44.7	2.6
		쓰레기 문제 발생 여부	5.3	13.2	31.6	50.0	0.0
		기타문제(지하수, 수질, 토양침식)발생여부	2.6	21.1	39.5	34.2	2.6

자료: 설문조사에 근거함(조사 대상자: 76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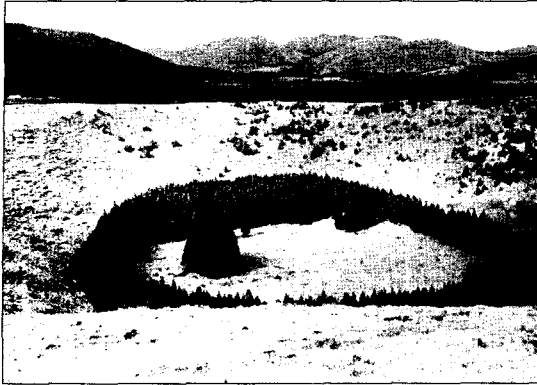


그림 2. 아부오름 내부전경



그림 3. 아부 오름 진입도로의 봉쇄



그림 4. 오름 입구의 관광객과 출입제한 시설



그림 5. 관광객의 탐방에 의한 답압(踏壓)

로에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지표면의 경사가 심한 이유로 그 훼손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아부오름의 비고(比高)는 50m가 채 안되기 때문에 사면을 따라 모든 방향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그러나 건영목장을 관통하여 오름으로 접근할 수 있는 도로가 오름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오름의 동쪽 사면이 다른 사면에 비해 훼손이 심각한 실정이다. 이러한 답압은 대개 2차적인 과정으로 발전하여 식생과 토양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식생의 측면에서는 답압으로 인해 표층의 식생이 제거되고 있고, 이로 인해 강한 종만이 살아남아 종의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또한 토양의 측면에서는 먼저 토양이 다져지며 이는 토양유출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토양구조를 파괴시키고 있다. 결국엔 토양침식이 진행됨으로써 우곡작용 및 대규모의 표층파괴가 오름사면에서 나타나고

있다(그림 5).

## 2) 종달리 체험어장

### (1) 형성배경

체험어장이 위치한 북제주군 구좌읍의 종달리(終達里)는 제주도의 동쪽 끝 마을이다. '종달'이란 지명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끝(終)에 달(達)'하는 땅의 종착점을 의미한다. 마을 중앙에 위치한 오름이 '땅의 꼬리'를 의미하는 지미봉(地尾峰)이고, 제주도의 서쪽 끝 마을이 시작을 의미하는 '두모리(頭毛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종달을 앞선 의미로 해석해도 무방할 듯 하다. 종달리는 남쪽으로는 남제주군의 성산일출봉과 직접적인 경계면을 이루고 있으며, 해안선 너머로는 우도(牛島)와 마주보고 있다. 체험어장이 위치한 해안은 지미봉과 식산봉(食山峰)의 두 헤드랜드사이에 발달한 전형

적인 U자형 해변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미봉과 식산봉의 해안은 대부분 암석해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파식대와 같은 침식지형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암석해안 사이에서 발달한 해변은 입자가 작은 실트와 모래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우도에 의한 외해(外海)의 차단은 앞선 퇴적지형의 발달을 더욱 조장해주고 있다. 해변은 간조시 약 500m까지 확장되고 있으나, 만조시에는 100m로 축소되고 있다. 그러나 만조시라 할지라도 수심 50cm이하가 해안선부터 100m에 달함으로써 입수시 행동의 제약을 받을 정도는 아니다.

앞선 자연조건은 종달리 해안에 각종 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다. 이곳에서 서식하는 동·식물은 크게 해조류와 저서동물, 어류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바지락, 대북, 맛조개 등의 조개류가 대량으로 존재하고 있다. 종달리 주민들의 생산기반은 당근 및 감자 재배를 위한 밭농사와 일부의 벼농사이지만, 특수한 해안조건을 통한 조개류의 서식은 주민들이 공동어장을 운영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해 주고 있다.

결국 종달리는 반농반어(半農半漁)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마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민들의 생업기반이 바다와 육지에 공존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중적 구조는 마을에 대표적인 생산 기반이 없다는 것을 동시에 의미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기온은 제주도의 대표산업인 감귤산업의 성장에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sup>5)</sup>. 이와 함께 관광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도 별반 받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연유로 말미암아 종달리 마을은 제주도에서 가장 낙후된 마을로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고, 그 결과 관광개발을 통한 마을의 번영이 주민들의 희망과 대안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바램을 반영하여 '구좌읍종달리종합개발계획(1989년)'이 북제주군에 의해 수립되었다. 계획의 주안점은 해안도로를 건설하여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종달리를 관광 휴양단지로 조성하자는 것이었다<sup>6)</sup>. 그러나 북제주군의 예산부족과 사업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로 인해 관광개발은 진행되지 않았고 해안도로의 건설만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1988년부터 제기되어왔던 온천관광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자 마을 주민들의 불만은 증폭되기에 이르렀다<sup>7)</sup>. 이러한 상황에서 북제주군은

주민들의 불만과 민원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지역 개발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종달리 지역을 체험어장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의 표면적 요인은 맛조개와 바지락 등의 조개가 대량 서식한다는 점이었고, 다른 하나는 해안도로의 완공으로 접근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면적 원인은 앞서 언급한 주민 불만의 해소 차원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체험어장을 선정하고 간단한 시설 공사에 대한 부담을 북제주군이 담당함으로써 주민들의 불만을 어느 정도 해소시키려 했던 것이다. 실제 체험어장의 개장 이후 북제주군은 종달리 체험어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나타내지 않았고 방관하는 입장만을 견지해 오고 있다<sup>8)</sup>.

그러나 앞선 개발배경에 상관없이 종달리 체험어장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조개잡이를 체험할 수 있다는 특성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홍보가 되었다. 또한 각종 매스컴에서 종달리 체험어장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고, 영화 '연풍연가'의 촬영지로 선정되면서 마을에 대한 홍보가 가속화되어졌다. 그 결과 많은 관광회사가 관광루트에 종달리 체험어장을 포함시켰고, 1997년부터 관광객의 방문이 시작되었다(그림 6).

## (2) 관광현황과 관광영향

체험어장이 개장된 1997년부터 2000년까지는 폭발적인 관광객 방문을 경험하였다. 그러나 종달리 역시 관광객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방문객 수를 산정하기는 어렵고, 다만 지역주민에 대한 면접을 통해 대략적인 숫자를 가늠할 수 있을 뿐이다. 관광객의 방문은 계절별로는 하계에, 요일별로는 주말에 집중되었고, 그 규모는 일일 최소 1,000명에서 최대 2,000명까지 방문하는 것으로 면접 조사결과 나타났다. 관광객의 구성은 가족 단위의 관광객과 패키지를 통한 대중관광객이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후자가 좀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관광객 중에서도 우도와 성산포간의 도항선을 기다리는 틈새시간을 이용하여 방문하는 관광객이 많은 것으로 면접 결과 알 수 있었다. 이곳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행위는 맛조개와 같은 조개류 채취에 국한되어 있다. 특별한 도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개 채취는 가능했고, 그것의 양 역시 풍부했





그림 6. 종달리 체험어장



그림 7. 현재철거된 체험어장 입간판

기에 개장 당시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스스로가 운반하기 힘들 정도의 많은 조개를 채취하였다.

관광관련 시설물로는 샤워장 1동, 간이 매점 2동, 주차장 등이 있다. 이러한 시설은 북제주군의 지원에 의하여 대부분 건설된 것이고, 현재의 관리는 마을 청년회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간이 매점은 간단한 식, 음료의 제공과 함께 조개 채취 도구를 대여 해주는 장소로 사용되고 있다. 주차장은 한대 당 1,000원의 주차료를 받아서 관리를 해왔지만, 2001년 이후 북제주군의 징수 제재조치로 현재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그 결과 지역주민에게 환원되는 가장 큰 수익사업이 현재 없는 실정이다. 기타의 시설로는 입간판이 있는데, 이는 마을 주민들에 의해 현재는 철거된 상태이다. 입간판의 철거는 관광객 방문의 급증에 따른 마을 주민들의 거부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주민들은 관광으로 인해 마을이 활성화되기를 원했지만 관광객의 양적 증가만 거듭할 뿐, 그로 인한 경제적 창출이 없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으로 입간판을 철거하기에 이르렀다(그림 7).

한편 관광객의 대량 방문은 관광자원인 조개의 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개장 후 3~4년 동안은 조개채취가 가능했으나, 무차별적인 관광객의 입장 허용 및 채취는 조개의 성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특히 맛조개의 성장은 비교적 느린 편이어서 어획 압력의 증가는 개체군의 집단 크기를 크게 감소시켰으며, 존립 자체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강도형, 2001). 결국

현재에는 조개류에 대한 채취가 용이하지 않은 실정에 있으며, 이는 곧 관광객의 흥미를 삭감시켜 관광객 방문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설문지를 통해 관광영향을 조사해본 결과 관광으로 인해 파생된 부정적 영향이 상당부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영향에서 관광소득의 외부 유출여부에 대한 질문에 48.6%의 주민이 강한 긍정을, 29.7%의 주민이 긍정의 응답을 하였다. 1997년부터 많은 관광객이 체험어장을 방문했지만, 입장료를 받지 않은 관계로 관광으로 파생된 이익이 거의 없었다. 단지 조개 채취를 위한 도구 대여료나 주차장 수입이 존재했지만, 대부분의 관광객이 직접 채취를 한 연유로 도구를 대여하지 않았고, 주차장 요금 역시 군(郡) 당국의 제재로 부가하지 못하는 실정에 있다. 또한 마을 주민이 운영하는 간이 매점이 있으나 다수의 관광객이 이용을 하지 않아 창출되는 관광수입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결국 체험어장은 마을이 주체가 된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입장 수입과 각종 수입사업의 부재로 경제적 이익을 파급시키지 못한 결과가 되었다. 마을 주민의 입장에서 관찰했을 때, 많은 양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것은 그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파급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경제적 효과는 없었기에 그로 인한 실망감과 함께 경제적 이익이 외부로 유출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생겨난 것이다.

그러나 경제적, 사회·문화적 측면의 관광영향보다는 환경적 측면의 관광영향이 지역주민에게 가장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

표 2. 관광영향에 대한 주민 응답

구 분	실문내용	응답(%)					
		강한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부정	
경제적 영향	긍정적 측면	마을 경제 활성화 여부	0.0	8.1	13.5	27.0	51.4
		고용창출 여부	0.0	0.0	8.1	29.7	62.2
		관광소득의 지역내 재투자 여부	0.0	0.0	8.1	40.5	51.4
	부정적 측면	땅값의 상승과 외지인 토지소유증가 여부	0.0	18.9	54.1	18.9	8.1
관광소득의 외부 유출 여부		48.6	29.7	5.4	16.2	0.0	
사회· 문화적 영향	긍정적	주민 자긍심 및 마을 이미지 향상 여부	0.0	10.8	21.6	32.4	35.1
	부정적 측면	고유한 전통 및 문화의 붕괴여부	0.0	8.1	13.5	48.6	29.7
		범죄 증가 여부	0.0	0.0	16.2	54.1	29.7
		관광객에 대한 문화적 거부감의 존재 여부 관광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 여부	2.7 27.0	10.8 21.6	48.6 24.3	29.7 18.9	8.1 8.1
환경적 영향	긍정적 측면	마을 생활(물리적)환경의 개선 여부	2.7	5.4	54.1	35.1	2.7
		삶의 질의 개선 여부	0.0	5.4	8.1	32.4	54.1
	부정적 측면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발생 여부	29.7	37.8	16.2	13.5	2.7
		쓰레기 문제 발생 여부 기타문제(지하수, 수질, 토양침식)발생여부	64.9 64.9	13.5 16.2	10.8 8.1	10.8 8.1	0.0 2.7

자료: 설문조사에 근거함(조사 대상자: 72명).

오염을 포함한 일반적인 환경문제 발생여부에는 81.1%, 쓰레기 문제 발생여부에는 78.4%, 관광객 차량으로 인한 교통혼잡 발생 여부에는 67.5%의 주민들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으로는 한정된 공간에 폭주하는 관광객의 집중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관광객의 흐름을 유도 및 분산시킬 수 있는 방문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문객 관리의 부재는 관광객의 흐름을 유도하지 못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에게는 부정적 영향을, 관광자원인 해양생태계에는 멸종이라는 결과를 미치게 되었다.

### 3) 예래동 생태관광마을

#### (1) 형성배경

예래동은 서귀포시의 12개동 가운데 가장 작은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는 매우 유서 깊은 마을이다. 선사시대부터 취락이 입지했었으며, 역사시대에도 이러한 상황이 이어져 서귀포시의 자연취락 43개 가운데 10개가 예래동에 입지하고 있다(서귀포시, 2000). 그러나 현대사회로 접어들면서 예래 마을은 커다란 변화에 직면하기 시작했는데, 그 원인은 중문관광단지의 개발

에 기인한다.

중문관광단지는 1970년대의 계획을 필두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이는 전적으로 국가(한국관광공사)의 자본과 기술에 의해 개발되었고, 현재의 관리 역시 동일주체가 담당하고 있다. 예래동 주민들은 관광단지의 개발 및 관리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었고, 국가사업이라는 명목 하에 토지를 헐값에 매도할 수밖에 없었다<sup>9)</sup>. 토지를 매도한 주민들은 삶의 형태가 전환됨으로써 직업을 바꾸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를 해야만 했다<sup>10)</sup>. 대다수의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의 1차 산업에 종사한 관계로 삶의 터전이자 생활 공간이 토지와 바다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단지조성으로 인해 생활공간을 일순간에 박탈당했고, 이는 곧 다수의 지역주민들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회문제를 가져왔다. 또한 토지 매도금으로 생긴 목돈을 탕진하는 현상이 발생하였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주민도 나타났다. 한편 관광단지에서 파생된 일자리에 취업하더라도, 취업의 질이 매우 낮은 단순 일용직에 종사함으로써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었다<sup>11)</sup>.

한편 중문관광단지의 특성상 고급 숙박업소와 시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므로, 마을 주민들은 단

지내의 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는 관광객과 지역주민과의 위화감을 생성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양자간의 공간적 격리를 가속화시켜, 중국적으론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부정적 인식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중문관광단지로 인해 파생된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오염문제에 있다. 관광단지가 대규모로 건설되고 많은 수의 관광객이 이용하는 관계로 대량의 쓰레기와 오수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특히 오·폐수로 인해 해안에 백화(白化)현상이 나타났고, 해안주변 어장에 오염이 가중되기 시작했다<sup>12)</sup>. 이로 인해 바다에 생업을 두고 있던 해녀와 일부 어민들이 피해를 보기 시작했다.

또한 관광지의 속성상 청정한 환경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쓰레기 소각장 및 매립장, 그리고 하수처리장의 건설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혐오시설이 공공롭게도 예래동 지역에 집중되어 입지하고 있다. 결국 예래동 주민들은 관광단지에서 파생되는 긍정적 영향을 수혜받지 못한 채, 그것의 부정적 영향만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한 부정적 영향은 주민들의 불만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그들만의 담론을 형성하는 계기로 작용하였고, 이는 다시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반대와 쓰레기 매립장 입지반대운동과 같은 지역주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건설 당시 시대 상황에 앞선 친환경적 시설이었으나 잘못된 관리로 말미암아 예래동을 포함한 인접 지역에 많은 환경피해를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귀포시의 팽창으로 인해 하수종말처리장을 확장하겠다는 계획이 발표되자 예래동 주민들은 적극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예래동 연합청년회가 주관한 반대서명으로 표출되기 시작했고, 이후 관계당국에 진정서를 제출함으로써 사업계획의 철회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자 마을 청년회는 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시위를 통한 적극적인 의사 표출을 시도하였다<sup>13)</sup>. 그러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확장사업 철회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지역주민들은 운동의 목표를 사업철회에서 계획변경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낮아졌고, 또한 주민분열을 우려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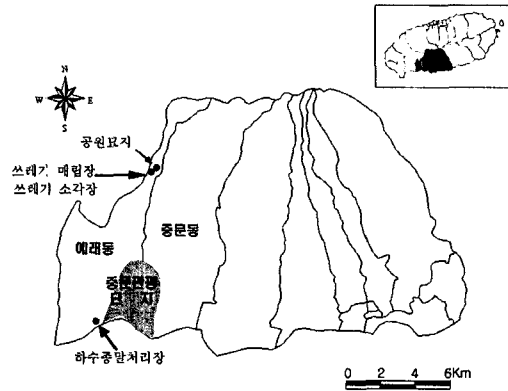


그림 8. 각종 혐오시설의 입지현황

여 반대대책위원회는 마을 개발사업을 지원 받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sup>14)</sup>.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중반에 새로운 지역 문제로 대두된 것이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입지 문제이다. 관광객의 증가로 말미암아 쓰레기 처리의 한계 상황을 체감한 서귀포시는 새로운 쓰레기 처리장 건설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이것의 후보지를 물색하게 되었는데, 공공롭게도 예래동의 일부인 색달동 일대가 선정되었다. 색달동은 예래동에 포함된 법정동으로서 중산간 지역에 해당되는 마을이다. 색달동은 상주 인구가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의 서북쪽 외곽에 입지함으로써 시 당국에 의해 최적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예래동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공원묘지와 함께 또 다른 혐오시설이 입지한다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가지게 되었다.

예래동 마을 주민들은 이에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 반대운동과는 달리 마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없었고, 주민에 대한 행정당국의 압력이 가중되었으며, 동시에 일부의 주민들이 쓰레기 처리장 입지에 찬성함으로써<sup>15)</sup> 반대운동은 무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매립장의 경우는 현재 완공이 된 상태이며, 소각장의 경우는 현재 건설 중에 있다(그림 8).

유서 깊은 마을의 역사성으로 인해 어느 정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었던 예래동 주민들은 지역주민운동을 경험하면서 공동체 의식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또한 이를 통해 마을주

민들의 의식이 개발보다는 환경보전과 가까운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마을의 공동체 의식과 환경보전의식의 형성은 환경을 보전하면서 동시에 소득을 증진시키자는 구체적인 실천행위로 표출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생태관광마을의 조성이다.

(2) 관광현황

하수종말처리장 확장반대운동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던 마을 청년들은 지역운동 이후 환경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심도 있는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확장반대운동에서 경험한 지역단위의 한계점을 인식한 것이었고, 충분한 반성의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로 1995년에 '예래환경연구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20명의 회원으로 시작하여 현재 50여명밖에 안 되는 소규모 연구회지만, 이는 제주도내 유일한 마을 단위 환경단체이자 NGO로서, 그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환경과수꾼임을 자칭하면서 적극적인 지역환경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11회에 해당하는 환경연구회보를 제작하여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전담하고 있으며, 정기월례회를 통해 회원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있고, 학습을 통해 환경문제에 대한 이론적 무장을 공고히 다지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연구회의 활동이 기존의 지역환경운동에서 실천적인 대안사업으로 전환하는 운동방향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마을의 아동을 대상으로 '녹색별 어린이'라는 어린이 환경학교를 운영하여 평생 학습차원의 적극적인 환경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이것의 연장선상으로 '무기능 고무마발 체험', '철새도래지 탐방', '오름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태관광마을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들이 주관하는 생태관광마을 개발계획은 지속가능한 관광의 특성을 상당 부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기본방향에서는 생태적인 취락구조를 유지 및 개발하여 환경적으로 모범이 되는 생태마을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마을로 활성화시켜 관광객들의 기호를 만족시켜줌과 동시에 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는 곧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개발임과 동시에 환경에 무리한 손상을 가하지 않는, 다시 말해 지속가능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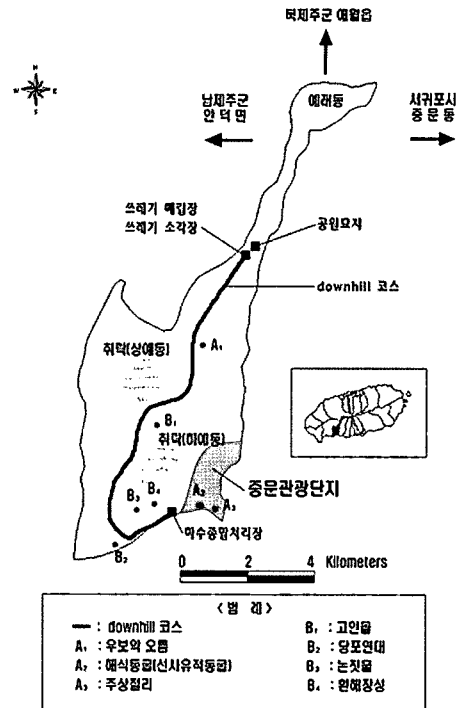


그림 9.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의 관광자원과 프로그램

관광의 주요 특성과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그와 동시에 주민의 소득을 증진시키는 경제적 지속가능성과 함께 관광객의 다양화된 기호까지 만족시켜주는 것이 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예래환경연구회가 개발한 관광상품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먼저 선사시대부터 지속된 마을의 역사성을 부각시키는 역사·문화형 관광상품의 개발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예래 마을에는 역사시대는 물론이고 선사시대에 이르는 유물과 유적이 도처에 상존하고 있다.

예래환경연구회에서는 유물·유적에 대한 자원 목록화 작업과 관광자원화 작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주요 관광자원으로는 선사시대 유적인 동굴 유적 및 고인돌이 있으며, 역사시대 유적인 당포연대, 환해장성, 도대불 방사탑 등이 있다. 자연형 관광자원으로는 해안일대의 주상절리군과 중간간 지역의 우보약 오름이 있다. 마지막으로 체험형 관광상품인 다운힐(down hill) 프로그램이 있다. 이는 독창적으로 개발한 상품으로서,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이용하여 중간간지역에서 해안지역까지 내려오는

체험형 관광상품이다. 코스의 시작은 쓰레기 처리장에서 시작하여 종착점은 해안에 인접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되어 있고, 코스 중간에 오름 및 각종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경험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 있다. 이는 코스의 시작을 혐오시설에서부터 시작해 마지막을 혐오시설로 마침으로써 관광객으로 하여금 자연스러운 환경교육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해주고, 이와 동시에 예래동에 산재한 자연 및 역사·문화관광자원을 경험하여 방문자 경험의 질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그림 9).

관리과정 뿐만 아니라 미래의 관광지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지역주민의 의식은 지역담론을 형성시키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데, 그것이 개발을 지향할 때는 지역담론이 개발 지향적으로 정착되고, 보전을 지향할 때는 환경 지향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 송당리와 종달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지역주민들이 개발 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예래동의 경우는 환경 지향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 후자의 경우는 중문관광단지 개발과정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인식하는 과정에서 환경보전 의식이 고취된 것으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에 반해 전자의 지역들은 제주도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덜 된 지역으로, 개발배제에 따른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말미암아 개발의식이 탁월하게 나타났다(표 3).

이러한 의식은 차후 전개되는 관광개발과 관리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관광개

#### 4. 생태관광지의 지속가능성

##### 1)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할의 측면

지역사회의 역할과 의식은 현재의 관광개발 및

표 3. 지역주민의 환경의식과 개발의식

설문내용	송당리 아부오름				종달리 체험어장				예래동 생태관광마을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강한 긍정	긍정	보통	부정	강한 부정	
관광개발의식	경제적 번영을 위한 관광객 방문의 유치	13.2	42.1	31.6	10.5	2.6	16.2	29.7	40.5	13.5	0.0	5.9	39.2	31.4	17.6	5.9
	경제적 번영을 위한 환경오염의 불가피성	2.6	28.9	28.9	34.2	5.3	0.0	64.9	21.6	10.8	2.7	0.0	17.6	23.5	33.3	25.5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의 필요성	13.2	36.8	31.6	15.8	2.6	18.9	35.1	43.2	2.7	0.0	7.8	19.6	21.6	25.5	25.5
	고급(대형)호텔 건설의 필요성	2.6	36.8	23.7	26.3	10.5	5.4	27.0	48.6	18.9	0.0	2.0	5.9	25.5	37.3	29.4
	마을의 대표산업은 관광산업인가?	18.4	31.6	26.3	21.1	2.6	18.9	54.1	24.3	2.7	0.0	15.7	41.2	27.5	9.8	5.9
	평 균	10.0	35.2	28.4	21.6	4.7	11.9	42.2	35.6	9.7	0.5	6.3	24.7	25.9	24.7	18.4
환경보전의식	환경보전을 위한 관광객 방문 제한	2.6	21.1	23.7	50.0	2.6	27.0	35.1	13.5	16.2	8.1	9.8	19.6	31.4	29.4	9.8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 손실의 불가피성	2.6	31.6	42.1	21.1	2.6	2.7	51.4	32.4	10.8	2.7	7.8	51.0	25.5	11.8	3.9
	마을 토지의 보전 지역 지정	0.0	10.5	28.9	52.6	7.9	0.0	2.7	8.1	40.5	48.6	5.9	29.4	31.4	21.6	11.8
	마을의 대표산업은 1차 산업인가?	2.6	18.4	26.3	44.7	7.9	5.4	8.1	24.3	45.9	16.2	9.8	29.4	25.5	29.4	5.9
	평 균	1.9	20.4	30.2	42.1	5.2	8.7	24.3	79.5	28.4	18.9	8.3	32.3	28.4	23.0	7.8

자료: 설문조사에 근거함(조사 대상자: 송당리: 76명, 종달리: 72명, 예래동: 102명).

발의 계획자체에서 표출될 수 있으며, 관리과정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발계획에 환경보전을 지향하는 관리도구가 포함되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개발 지향적인 성격으로 말미암아 계획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개발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관광지의 수명주기가 단축될 소지를 안고 있다. 그러나 환경보전의식이 높은 지역은 다른 양상으로 개발될 수 있다. 환경보전의식이 탁월한 결과 관광개발 자체가 상당히 지연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으나, 환경보전이 담보된 계획을 진행하고, 관리 또한 친환경적인 방향으로 실천함으로써 관광지의 환경이 지속적으로 보전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는 다시 관광지의 수명주기를 연장시켜 관광지로 인한 경제적 혜택을 장기간 수혜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사회의 역할 측면에서도 저마다 다른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 송당리 아부오름의 경우는 관광객에 의해 관광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관광계획은 물론이고 관리상에서의 지역주민참여가 전무한 실정이다. 종달리 체험어장의 경우는 관광계획 및 개발은 행정기관(북제주군)이 주도하였고, 관리는 지역주민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대다수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관광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전반적 지식이 미약한 실정이다. 그 결과 비효율적이면서 체계적이지 못한 관리로 귀결되어 조개류와 같은 관광자원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만약 관광객이 방문하기 전에 지역주민에 의한 주도적 계획 및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관광개발 및 관리와 관련한 전문적 지식이 축적되었다면 종달리 체험어장은 현재 다른 양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정이 가능하다.

예래동의 경우는 협오시설 입지반대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청년들을 중심으로 마을 단위의 NGO가 결성되었고, 이는 현재 계획중인 생태마을의 조성 및 운영에 대해 주도적인 참여를 하고 있다. 예래 생태관광 마을의 개발 주체인 예래환경연구회는 관광지 개발에 대해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 관광지를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각종 지식과 정보를 현재 축적하고 있다. 실제 그들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하여 생태관광개발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고, 타지역 NGO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개발을 위한 노하우를 학습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계획의 초기선상에 있지만, 주민참여의 양상이 지속적으로 전개된다면 차후의 관광개발이 좀 더 지속가능한 측면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

## 2) 관광영향과 지속가능성의 측면

지속가능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관광영향은 경제적, 사회·문화적, 환경적 측면으로 세분하여 고려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송당리 아부오름과 종달리 체험어장은 지역사회에 경제적 혜택을 별반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표 2). 오름 탐방으로 인해 송당리 지역의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고, 종달리 체험어장의 경우는 주민이 직영하는 매점으로 일정량의 수입이 파생되고 있지만, 그 정도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관광객 방문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수입이 전혀 없는 실정이기 때문에, 두 지역의 경우는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차후에 전개되는 경제적 지속가능성 역시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종달리의 경우는 관광자원인 조개의 채취량이 감소함으로써 관광객의 방문이 점차 줄어들 전망이고, 아부오름 역시 경제적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주민사업이 아직까지 없는 관계로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예래동의 경우는 개발과정상의 관광지이기 때문에 차후에 나타날 경제적 측면의 영향을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 그러나 행정기관에서 주관하는 각종 지원사업에 최근 선정됨으로써 관광상품개발 및 기본적인 관광시설의 구축이 가능해졌고, 그 결과로 인해 어느 정도의 경제적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다는 예상이 가능하다<sup>16)</sup>. 또한 관광의 근간인 지역환경을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않고 잘 보전한다면 자원소비의 형평성 측면에서 미래의 경제적 지속가능성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태관광지라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높은 수익이 창출되고 수많은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는 하기 어렵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송당리와 종달리의 경우는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모두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1)(표 2). 결

국 이는 차후 전개되는 개발에 의해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이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래동의 경우는 현재까지 적은 수의 관광객이 방문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영향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광상품이 체험을 위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교류가 상당 부분 수행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다. 특히 관광객의 숙박이 지역주민이 운영하는 민박집에서 이루어지고, 각종 관광행위에 있어서 지역주민이 안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므로 여타의 관광지역에서 관찰할 수 있는 관광객과 지역주민간의 괴리감은 없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체험어장의 경우 상당히 높은 상태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였고(표 2), 아부오름 역시 어느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경험하였다. 아부오름은 관광지 내부의 기본시설 부재와 함께 관광객의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의 부재로 말미암아 관광으로 인한 환경적 영향이 더욱 증폭되었고, 관리시설에 대한 보완계획이 없는 관계로 오름 파괴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종달리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관광자원인 조개는 완전히 고갈될 것이고, 무분별한 관광객 입장으로 말미암아 주변 환경이 상당 부분 훼손됨으로써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반해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은 환경적 지속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 원인은 먼저 지역주민들의 환경의식이 매우 탁월함으로써 향후 전개되는 관광개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주민과 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역 환경을 보전시킬 수 있는 각종 관리도구를 적용함으로써 관광지의 환경훼손을 미연에 방지해 주는 역할을 제공할 수 있다.

### 3) 관광계획과 관리부문의 측면

관광계획과 관리부문을 통해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지표로 여섯 가지를 제시할 수 있는데, 먼저 공간관리시스템이 있다. 공간관리시스템은 관광지 내부의 공간배치와 관리를 통해 관광객의 흐름을 올바르게 유도하고, 그들의 공간적 집중과 분산을 효율적으로 관

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사례지역인 세 지역의 경우 이러한 시스템을 현재 적용하거나 적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관리시스템이 하드웨어적인 시설 배치라면 방문객 관리는 방문객의 흐름을 유도하도록 진행하는 일종의 소프트웨어이다. 예를 들면 관광지 입구에 방문객센터를 설치하여 관광지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소개할 수 있으며, 관광객에 대한 환경교육을 시행함으로써 관광자원에 대한 관광객의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방문객센터 내부에 관광지 전체를 체험할 수 있는 영상, 화보, 지도, 조형도 등을 전시하여 관광자원의 탐방에 대한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시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실제의 관광지에서 행해지는 관광객의 욕구를 어느 정도 해소시킴으로써, 관광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sup>17)</sup> 송당리와 종달리의 경우는 이러한 방문객관리시스템이 현재 없는 실정이다. 예래동의 경우도 현재는 없는 상태이나 앞서 언급했듯이 방문객센터의 건립이 예정되어 있다. 이는 실제 관광행위가 이루어질 때 예래동의 관광자원을 어느 정도 보호해 주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자원보호 프로그램은 지역내의 자원을 목록화함으로써 이를 특성별로 구분하여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면 희귀종인 자원, 인간의 간섭에 민감한 자원, 그렇지 않은 자원 등으로 구분하여 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송당리와 종달리의 경우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현재 없으며, 향후 계획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예래동의 경우는 현재 자원목록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내의 관광자원을 크게 인문 및 자연관광자원으로 구분하여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협력관계는 관광행위가 나타나는 지역과 GO, NGO, 관광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학자나 엘리트와의 협력관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협력관계를 통해 관광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는데 있어 매우 필수적인 항목이다. 송당리의 경우는 거의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고, 종달리의 경우는 지역의 학자 및 NGO와의 협력관계가 과거에 단발적으로 존재했지만 현재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지표를 통한 사례지역의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	지표항목	송당리 아부요름	종달리 체험어장	예래동 생태관광마을
지역주민의 의식과 역할	지역주민의 의식 지역사회의 역할	개발지향적 참여 저조	개발지향적 일부 참여	환경지향적 주도적 참여
관광영향과 지속가능성	경제적 영향 경제적 지속성	낮음 낮음	낮음 아주 낮음	none 보통
	사회·문화적 영향 사회·문화적 지속성	보통 보통	보통 보통	none 높음
	환경적 영향 환경적 지속성 환경오염 관리	높음 낮음 없음	아주 높음 아주 낮음 없음	none 높음 있음
관광계획과 관리부문	공간관리시스템	없음	없음	없음
	방문객관리시스템	없음	없음	있음
	자원보호 프로그램	없음	없음	있음
	협력관계	없음	있음(저조)	있음
	관광객	대안관광객	대중관광객	대안관광객
	환경교육	있음	없음	있음

\* 지표항목에 대한 평가는 설문조사와 면접조사를 통한 연구자의 주관적 평가임. 단 관광계획과 관리부문에 대한 평가는 지속가능한 관리도구 및 제반항목에 대한 유(있음), 무(없음) 평가임.

\*\* none: 관광행위자체가 없는 관계로 파악 불가능.

예래동의 경우는 현재까지 본격적인 관광개발이 진행되지 않고 있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계획단계에서부터 GO, NGO, 관광전문가, 그리고 지역의 학자들에게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있는 상태이다. 계획단계에서의 이러한 행위는 관광개발 및 관리를 위한 철저한 준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곧 실제 관광행위가 전개될 때 축적된 '지식'을 활용함으로써 주민 주도의 관광개발을 실현시키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관광객은 관광의 주체로서 관광지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관광객의 성향에 따라 관광지에 미치는 그들의 관광행위 및 그로 인한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관광지에서의 방문객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관광객의 성향은 문제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의 목적, 방문지, 행위 등이 모두 상이한 대중관광객과 대안관광객은 그들이 표출하는 각각의 영향이 모두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송당리의 경우는 대부분의 관광객이 환경체험을 경험하려는 대안관광객으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에 종달리의 경우는 대중관광객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예래동의 경우는 관광자원의 특색을 고려할 때 대부분 대안관광

객으로 구성될 수 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관광객으로 인한 영향은 송당리와 예래동에 비해 종달리가 다소 크게 나타날 수 있다(표 4).

환경교육은 지속가능한 관광을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항목중의 하나이다. 환경교육을 통해 지속가능한 관광을 구현할 수 있으며, 지속가능한 관광을 통해 환경교육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환경교육은 현재 송당리와 예래동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 사회환경교육으로서, 학교교육에서 진행되지 못하는 한계를 체험학습을 통해 실천하고 있다. 송당리의 경우는 환경교육의 대상이 관광객에게 국한되어 있지만, 예래동의 경우는 그 대상이 관광객은 물론이고 관광개발의 주체인 지역주민까지 포함되고 있다. 그로 인해 관광개발의 주체가 좀 더 환경 친화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 4) 소결

지표를 통해 사례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측정해본 결과 각각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먼저 아부요름의 경우는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혜택



이 거의 없으며, 오름 전반에 환경적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또한 오름주변의 마을 주민들이 관광객의 방문에 거부감을 갖고 있는 관계로 관광객의 지속적 방문이 용이하지 않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관광지에 대한 관리가 전무한 형편이고 차후의 지속적인 개발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된다면 관광지로서의 아부오름의 수명주기는 매우 단축될 것이며, 그것의 지속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체험어장의 경우 역시 관광객 방문으로 인한 경제적 혜택이 거의 없으며, 관광자원인 조개의 수가 점점 감소하여 현재는 멸종의 단계에 이르고 있다. 또한 관광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역시 없는 형편이고, 오히려 마을 주민간의 분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체험어장의 지속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고 볼 수 있다.

예래생태관광마을은 현재까지 본격적인 개발이 이루어 지지 않았고, 관광객의 방문도 소수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이것의 지속가능성을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상당히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러한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주민운동을 경험하면서 지역주민들의 의식이 개발보다는 환경의식에 가깝게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의식은 차후 진행되는 개발과정에 반영됨으로써 환경친화적 개발의 토대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지역주민운동을 통해 지역의 공동체 의식이 공고히 되어 주민통합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는 결국 향후 전개되는 마을 사안에 대해 주민들이 더욱 빠른 공감대와 강한 결속력을 갖게 해준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관광전문가 및 각종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관광지를 주민 스스로의 힘으로 개발 및 관리할 수 있는 정보와 지식을 축적하고 있고, 방문객관리, 자원보호 프로그램과 같은 관리도구의 적용을 관광계획에 포함시켜 놓음으로써 실제 관광행위가 나타날 때 그것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열거된 원인으로 말미암아 예래생태관광 마을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나아가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관광의 가장 규범적인 모델로 정착될 수 있다는 전망 또한 가능하다.

## 5. 결론

앞서 검토한 3개의 사례지역은 모두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대안적 관광지이다. 기존의 대중관광지에서 볼 수 있는 시설위주의 개발보다는 상품위주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고, 방문하는 관광객의 행위는 생태체험과 같은 교육적이고 자기 계발적인 측면이 강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도 기존의 관광에 비해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래동 생태관광마을을 제외한 두 개의 관광지에서는 환경훼손을 비롯한 부정적 측면의 관광영향이 상당부분 나타나고 있다. 영향의 정도는 대중관광지에서 나타나는 것을 초월함으로써 관광지의 수명주기를 점차 단축시키고 있고, 현재는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거의 상실하는 위기에 봉착되고 있다. 또한 관광으로 인해 파생되는 경제적 혜택이 별반 나타나고 있지 않으며, 오히려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이는 곧 생태관광을 표방하는 모든 관광지가 지속가능하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대중관광지의 지속가능성보다 더욱 낮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생태, 녹색, 대안관광과 같은 관광의 유형만을 판단하여 관광지의 지속가능성을 가늠하는 것보다 실제의 관광개발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관광지 관리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생태관광지를 개발함에 앞서 철저한 계획과 그에 따른 '최소한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하고 효율적인 관광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적 개발의 초석이 될 수 있는 환경교육이 지역주민을 비롯한 이해당사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면 생태관광은 관광객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면서 지역의 환경을 보전시켜주는 '지속가능한 관광'으로 발전할 수 있고, 그와 동시에 지역개발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각될 수 있다.

## 註

- 1) UN은 2002년을 '생태관광의 해'로 지정하여 생태관광의 진흥과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 2)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동렬: 2000, 김대관: 2001, 강

- 미희·김성일: 2002)의 지표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앞선 지표에 항목을 첨삭함으로써 독창적 지표를 개발하였다. 그 이유는 지표 획득을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통계가 요구되는데, 관광통계는 그 자체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통계 자체가 거의 없는 관계로 획득 가능성이 낮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유와 함께 관광정책 및 관광 운영자가 아닌 지역주민의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선 새로운 지표의 개발이 필요했다.
- 3) 관광공간의 확산은 포스트모던 관광(postmodern tourism)에 대한 논의와 맥락을 같이 할 수 있다. 포스트모던 관광은 일상과 관광간의 경계가 소멸되는, 이른바 탈분화를 수반함으로써 경제, 사회, 문화, 교육활동과 관광활동이 중첩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환경교육과 같은 교육활동이 곧 생태관광이 되고, 학술적이고 심미적 측면의 문화답사가 문화관광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공간적으로 반영이 되어 기존에 관광장소로서 주목받지 못한 공간이 관광객의 기호, 흥미, 취향을 통해 내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관광지의 공간적 분포가 해안 경승지와 같은 특정장소를 따라 분화되었다면, 포스트모던 관광에서는 일상생활장소가 곧 관광지가 되기 때문에 관광공간이 수직·수평적으로 확산되는, 이른바 관광공간의 탈분화 현상이 수반된다.
  - 4) 관광공간의 탈분화는 제주도의 관광지를 재편성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해안위주의 색다른 장소에서 시작하여 내륙 지향적인 오름 관광지까지, 제주도 전역이 관광지로 형성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도민들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고, 내재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오름을 재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오름이라는 공간이 당대의 사회적 의미를 받음으로써 새롭게 형성 및 변형되어 가는 '공간의 사회적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 5) 제주도에서 풍속이 가장 빠르고 기온이 낮은 지역은 성산포를 비롯한 동쪽 해안이다. 그 결과 노지에서 감귤 생산량이 제주도의 타지역에 비해 매우 낮다(기상청 <http://www.kma.go.kr>).
  - 6) <제주일보> 1992년 4월 7일자.
  - 7) 1988년 종달리 일대에 온천이 발견됨으로써 마을주민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도는 북제주군의 세화리 및 남제주군의 성읍리와 함께 종달리를 온천지구로 개발시킬 것을 당시 제주도 개발의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제주대학교에 건의하였다. 그러나 마을주민의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개발특별법의 일환으로 계획되었던 3개 관광지 20개 관광지구 선정에서 종달리는 제외되었고, 인접 마을인 세화·송당 지구가 온천개발지구로 선정되었다. 선정과정에서 많은 잡음과 의혹이 대두되었고, 이에 대해 주민들은 각종 민원을 제기하였지만 이는 끝내 수용되지 못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목격한 종달리 주민들은 상당 부분 실망을 하게 되었고, 이는 마을을 이탈하는 젊은 진출인구의 증가를 상대적으로 촉진시키게 되었다. <제민일보> 1993년 3월 10일자. <제주일보> 1994년 9월 8일자.
  - 8) 북제주군 관광 담당 공무원과의 면담 과정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담당 공무원은 체험어장의 발전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으며, 종달리 체험어장을 관광지로 규정하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았다.
  - 9) 관광단지 개발계획이 공포되면서 주변지역 토지에 대한 매입이 이루어졌는데, 매입의 주체는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관광공사가 전담했으며 보조 역할은 제주도가 담당하였다. 물론 토지매입과정에서 매도에 적극적인 주민도 있었지만,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주민 반발로 인해 매입과정이 난항을 거듭하자 관광공사와 제주도는 당시 절대적이었던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주민들에게 '토지수용령'을 공포하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지역주민들은 오랜 기간 동안 거주하여 왔던 삶의 공간을 낮은 가격에 매도하게 되었다. 매입가격은 평균 평당 1만원 수준에서 책정되었고, 토지보상비는 1,200원에서 4,600원 사이로 지급되었다. 그러나 저가의 매입 가격에 비해 토지 분할과정에서의 매도 가격은 고가에 거래되었다. 관광공사는 매입한 토지를 재벌기업이나 업자들에게 최고 28만원에 되팔아 약 3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 지주들이 반발했고, 일단의 지역주민들이 강제수용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하였다. 그러나 거대한 국가권력 앞에 일개(一介) 마을과 개인이 저항하는 것은 역부족이었고, 관광단지에 편입된 모든 토지와 재산은 개발주체에 매입되었다.
  - 10) '수 만평의 토지가 매입되는 과정에서 토지와 거주지는 물론이고 마을 전체가 소개되는 현상이 발생되어, 해안의 작은 포구인 성천포의 11가구는 250년간 살았던 마을을 일순간에 떠나야 했다'(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 확장 반대투쟁위원회가 편찬한 '1990년 10월 4일 그날'에 수록된 글을 인용함).
  - 11) 중문관광단지의 전체고용인원(2000년)은 2,141명이고, 그 중 지역주민에 대한 고용은 1,564명으로 73.0%에 이르는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지역 고용의 47%가 단순일용직 고용이고, 일용직 전체고용인원의 96.5%인 736명이 지역에서 창출되고 있다. 이는 단지에서 창출된 대부분의 일용직 고용을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한국관광공사 제주지사 내부자료).
  - 12) 예래동 하수종말처리장확장 반대투쟁위원회가 제작한 1990년 10월4일 '그날'이란 보고서 형태의 글에서는 백화현상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관광단지내 생산되는 폐수는...(중략)...그간 9년이란 세월동안 이로 말미암아 1종 공동어장에 생산되는 해산물은 급격히 줄었고 썰물 때는 암석이 하얗게 변해 해녀(색달27명, 상·하예동 95명)와 어업종사자(동력9척, 선원35명)가 생계위험을 느끼고 있다.
  - 13) 이중 가장 적극적인 행동표현이 1990년 10월 4일의 주민 결기대회에서 나타났다. 예래초등학교에 집결한 주민 1,000여 명은 동민단합 및 결기대회를 마치고 중문관광단지를 향해 평화행진을 벌였으며, 추후 도로 점거농성을 통하여 가두시위를 하였다. 주민들의 시위는 상당히 과격한 양상으로 발전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찰과의 투

- 석전은 물론이고 주민 5명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진행되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서귀포시는 사업계획의 유보와 함께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을 지역주민에게 약속하였다.
- 14) 예래환경연구회 회원들과의 면접조사 및 부만근의 책을 바탕으로 기술하였음(부만근, 1997).
- 15)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선정과정에서 입지에 찬성하는 색달동 주민과 반대하는 상·하예동 주민과의 대립 양상이 표출되었다. 초기에는 색달동 주민들도 반대 입장을 표명했으나, 마을의 생활환경개선사업 등을 행정당국으로부터 약속 받은 후에는 입지에 찬성하는 쪽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지역운동의 지도부(예래동 환경연구회)가 포진하고 있던 상·하예동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었다. 이에 지도부에서는 실제 매립장이 입지하는 색달동 주민의 입장과 생각을 존중함과 동시에 마을이 분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지 반대를 철회하고, 그것의 관리와 운영에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 16) 예래동은 최근 농림부가 주관하는 '녹색 농촌체험 시범마을'로 지정되어 2억원의 지원금을 받은 바 있다(2002년5월). 또한 서귀포시는 시범마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서 16억의 예산을 투입하여 방문객센터를 건립하고 테마박물관 조성하기로 했으며, 주변 자연자원인 예래천의 생태를 복원하고 인문자원인 전통초가 및 사당 재현 사업을 2005년까지 완성하기로 밝힌바 있다(2002년 7월).  
 <동아일보> 2002년 5월 16일자.  
 <동아일보> 2002년 7월 24일자.
- 17) 방문객센터, 동물원, 식물원 등을 통한 여행경험의 선취성은 관광지의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있다. 보전이 요구되는 관광지의 고유한 자원을 특정 장소에 집중시켜놓는 것은 고유성(authenticity)을 강조하지 않는 대중관광객으로 하여금 만족할 만큼의 여행경험을 가져다주며, 이는 다시 해당 지역에서 산존(散存)하는 실제의 관광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여행경험의 선취성은 관광지의 환경손상을 훨씬 덜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21세기 관광의 해결책으로 발전할 수 있다(Lash and Urry, 1996).

### 文 獻

강도형(외), 2000, "제주도 종달리 체형어장의 환경적 특성과 발전방향," 제주도 연구, 18, 151-171.

강미희(외), 2002, "설악산 생물권 보전지역 관광의 지속가능성 평가," 한국공원휴양학회지, 4(1), 231-244.

강민수, 2000, "예래 생태관광마을 계획의 경과와 전망," 녹색평화, 1, 46-54.

김남조(외), 1998, 지속가능한 관광개발과 지역주민 참여, 한국관광연구원, 서울.

김동렬, 2000, 지속가능한 관광의 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대관, 2001,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지표 연구, 한국관광연구원, 서울.

김성일, 2001, "지속가능한 관광과 미래 과제," 김성일·박석희(역음), 지속가능한 관광, 일신사, 13-34.

김종철, 1995, 오름 나그네, 도서출판 높은 오름, 제주.

박형준·권기돈(역), 1998, 기호와 공간의 경제, 현대미학사, 서울 (Urry J. and Lash S., 1996, *Economies of Signs and Space*, SAGE Publications Ltd, London).

부만근, 1997,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제주대학교 출판부, 제주.

서귀포시, 2000, 통계연보, 제주도.

심승희, 2000, 문화관광의 대중화를 통한 공간의 사회적 구성에 관한 연구-강진·해남지역을 사례로-, 서울대학교 지리교육과 박사학위논문.

오정준, 2003,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관한 연구-생태관광지의 사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예래환경연구회, 예래동 환경연구회보, 제1호~11호.

이후석(역), 2001, 생태관광, 백산출판사, 서울 (Wearing, S. and Neil, J., 1999, *Ecotourism*, Reed Educational & Professional Publishing Ltd).

제주도, 1997, 제주의 오름, 제주도.

한국관광공사, 1997,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서울.

Bramwell, B. and Lane, B., 1993, Sustainable tourism: an evolving global approach,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1(1), 1-5.

Butler, R., 1998, Sustainable tourism-looking backwards in order to progress? in C. Michael Hall and Alan A. Lew (eds.), *Sustainable Tourism: A Geographical Perspective*, Longman, London, 25-34.

- Clarke, J., 1997, A framework of approaches to sustainable tourism, *Journal of Sustainable Tourism*, 5(3), 224-233.
- Krippendorf, J., 1982, Towards new tourism policies, *Tourism Management*, September, 135-148.
- Munt, I., 1994, The 'other' postmodern tourism: culture, travel and new middle classes, *Theory, Culture & Society*, 11, 101-123.
- Nelson, S., 2002, Definitions of ecotourism and Australian experience,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음), 한국의 생태관광 발전 전략 모색,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서울.
- Tickell, C., 1994, Foreward, in Erlet Cater and Gwen Lowman (eds.), *Ecotourism: A Sustainable Option*, John Wiley & Sons, ix-x.
- World Tourism Organization, 1996, *What Tourism Managers Need To Know: A Practical Guide to the Development and Use of Indicators of Sustainable Tourism*, WTO.
- <http://www.kma.go.kr>
- 최초투고일 03. 07. 11  
최종접수일 03. 09. 15